



## 2024 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드래프트 결과 및 감독&선수 인터뷰 일문일답

여자배구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1순위의 영광은 크로아티아 출신 바르바라 자비치에게 돌아갔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뛴 부키리치는 2순위로 정관장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홀리데이 인 앤드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렸다. 7일부터 시작된 공식 일정은 9일 오전 최종 평가 훈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9일 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8시) 열린 드래프트 첫 순서는 확률 추첨이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초청 선수 37명, 기존 선수 4명 등 총 41명이 드래프트를 신청했다. 그 중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31·카메룬)와 지젤 실바(31·쿠바)는 원소속팀인 현대건설, GS칼텍스가 전날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 무대를 밟게 됐다.

우선계약을 마친 구단까지 포함해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7위 페퍼저축은행(35개), 6위 한국도로공사(30개), 5위 IBK기업은행(25개), 4위 GS칼텍스(20개), 3위 정관장(15개), 2위 흥국생명(10개), 1위 현대건설(5개)의 구슬이 배분됐다. 가장 먼저 나온 건 페퍼저축은행의 흰색구슬이었다. 이어 정관장,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GS칼텍스, 흥국생명, 현대건설 순으로 지명 순서가 결정됐다.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은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바르바라 자비치(29·크로아티아·1m91cm)를 지명했다. 자비치는 아포짓 선수 중 높이와 공격력이 뛰어나 여러 구단의 레이더망에 잡혔다. 앞서 열린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미들블로커 장위(중국·1m97cm)를 선발한 페퍼저축은행은 V-리그 최고 수준의 높이를 구축하게 됐다.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예상보다 빠른 순번을 얻은 정관장은 타임을 요청했다. 고희진 감독은 고심 끝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뛰었던 반야 부키리치(25·세르비아)를 뽑았다. 부키리치는 지난 시즌 득점 3위에 올랐으나 도로공사가 재계약을 포기했다. 아시아쿼터 메가를 보유한 정관장은 아웃사이드 히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포짓 부키리치를 뽑았다. 내심 부키리치 지명을 염두에 뒀던 구단 관계자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뱉었다.

도로공사는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 메렐린 니콜레바(21·불가리아·1m83cm)를 선택했다. 아시아쿼터에서 세터 천신통(중국)을 뽑아 높이 보강이 필요했던 IBK기업은행은 아포짓 스파이커 빅토리아 덴착(24·우크라이나·1m91cm)을 지명했다. 6순위 흥국생명엔 염두에 뒀던 선수들이 모두 뽑히면서 타임을 요청했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튀르키예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투르쿠 부르주(25·1m91cm)를 선택했다.

신규 선수는 연봉 25만달러, 재계약 선수는 30만달러를 받는다. 지난 시즌 흥국생명에서 뒀던 월로우 존슨(26·미국)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

### [감독 및 선수 인터뷰 일문일답]

#### ■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

- 1순위로 자비치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수 뽑아서 좋다. 한국에서 올 때부터 몇 명의 선수를 정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선수였다. 신장이나 파워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미국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만큼 생활 면도 훌륭했다. 현장에 왔을 때 눈에 띈 게 코치진이 평가 연습에 대해 설명했을 때도 다른 선수들에게 설명할 만큼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미국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만큼 생활 면도 훌륭했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높이가 좋은 팀이 됐다.

높이에서 밀리면 경기하기가 어렵다. 아시아쿼터 장위를 영입하면서 잘 구축됐고, 외국인 선수 까지 이어졌다. 그 높이를 잘 살릴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아포짓 스파이커에 포커스를 두긴 했지만, 너무 좁혀질 수 있어서 광범위한 선수를 봤다.

- 1순위를 두 개 다 가져갔다.

아시아쿼터 때 장위 선수가 8번이었는데, 그 전날 8번, 8번을 외치고 다녔다. 물 여덟 잔을 마셨다. 드래프트를 하기 전에 국내 선수들이 전날 다 같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 세터 박사랑이 대표팀에 차출된 상태다.

대표팀 훈련을 하루 직접 지켜봤다. 3명의 세터가 돌아가면서 훈련하고 있더라. 국가대표 모랄레스 감독도 세터 출신이라 신경을 쓰고 있다. 세터들이 별도의 훈련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복귀 이후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피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을 것 같다.

### ■ 정관장 고희진 감독

- 외국인 2명이 모두 아포짓 스파이커다.

트리아아웃에 와서 전체적인 선수 기량을 보고 부키리치가 재계약하느냐도 검토했다. 막상 와서 보니 부키리치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었다. 좋은 선수를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아직 훈련도 시작하지 않았다. 메가와 부키리치의 능력을 지켜보고 조합을 맞춰볼 것이다.

- 리시브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했나.

훈련을 통해서 맞춰나가야 한다. 부키리치를 뽑을 것에 대비해 메가의 수비, 리시브 능력과 부키리치가 과거 리시브를 했던 부분도 고려했다.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다. 준비했던 부분이 아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아웃사이드 히터를 뽑을 생각은 했다.

아웃사이드 히터를 먼저 생각하긴 했다. 다만 부키리치가 나오느냐도 고려하고 있었다. 외국인 선수가 선수단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득점력이 있는 선수를 포지션이 겹친다는 이유로 훈련도 해보지 않고 흘릴 수는 없었다. 좋은 조합을 만들어서 색다른 배구를 해보겠다.

- 선수단 변화가 많다.

서브, 리시브, 수비, 2단 연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려 한다. 플레이오프를 넘어서서 더 높은 곳까지 가려면 그것들을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 ■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

- 빅토리아 단착 선발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인데 계속 경기하던 모습을 오기 전부터 지켜봤다. 빠르기도 하고, 높이도 있다. 마음에 두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선수가 아니었다. IBK기업은행이 러시아 쪽 선수들과 좋은 기억도 많다.

- 순번이 높았다면 어땠을까.

처음에는 자비치를 염두에 뒀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른 팀이라면 잘 맞겠지만 우리 팀과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도 원했는데 보이지 않았다. 아데올라 오와코니란(미국)을 뽑을까도 했다. 부키리치가 왔다면 세터 천신통과의 조합이 좋아 선택하고 싶었다. 토스가 빠르지 않고 여유도 있어 잘 맞을 것 같았다.

### ■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 3순위로 뽑았는데 만족하는지.

3명의 후보를 보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었다. 니콜로바는 운동신경도 좋고, 센스가 있어 보인다.

---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아웃사이드 히터 쪽은 높이가 좋아졌지만, 아포짓 쪽은 낮아졌다. 그래도 그런 플레이를 우리는 많이 해봤다. 공격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서브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때리는 리듬이 좋아보였다. 공격 스피드도 있고, 파워도 있다. 나이에 비해 공을 다루는 솜씨가 좋다.

- 부키리치와 재계약을 고민했는데.

성적은 부키리치가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경기나 큰 경기에서 약한 면이 많이 보였다. 그 부분 때문에 선택해야 하지 않았다. 부키리치와 (아시아쿼터로 선발한)바티스타가 코트에 동시에 있었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했다.

- 리시브 시스템은.

바티스타가 좁은 지역의 리시브를 책임지게 해준다면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훈련을 해보고 백업 선수들을 활용해서 바뀌나가야 할 것 같다.

### ■ GS칼텍스 이영택 감독

- 재계약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 시즌 1,000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다.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영상으로 좋게 본 선수들의 실력을 체크했다. 실바와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 실바의 다음 시즌 활약상은?

일단 실력은 검증됐다.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 선수단 구성 밑그림은?

아시아쿼터도 염두에 뒀던 선수를 뽑았고, 실바도 지난해 같은 활약을 해준다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 미들 블로커가 약하다고 하지만, 새로 데려온 선수들 잘 성장시키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무한 경쟁을 통해 주전을 골라가겠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올 것 같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

사실 잘 알고 있던 선수다.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2번째 아포짓 스파이커로 뛰기도 했다. 해외에서 뛰어왔다. 성격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팀을 도와줄 선수라고 생각했다.

- 좀 더 상위순번이었다면 선택이 달랐을가.

추첨 운이 안 좋은 것 같다.

- 여러 포지션을 봤지만, 아포짓 스파이커를 선택한 이유는.

아웃사이드 히터 아나스타샤 구에라도 고려했지만, 김다은에게 많은 기회를 줄 생각이다. 성장 하길 바란다.

- 윌로우 존슨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다.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고, 다른 선수와의 호흡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팀 전체에서 4~5명 변화를 주려고 한다. 맞춰나갈 계획이다. 세터는 박혜진이 주축이 될 듯하다.

### ■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

- 재계약을 결정한 이유?

챔피언결정전이 끝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선수와 코칭스태프 모두 우승까지 가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고려했다. 부상 없이 전 경기를 소화했다.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줬다. 큰 고민 없었다. 돌아가기 전에 모마와 식사도 함께 했다.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 무릎이 피로 하지만, 잘 쉬면 좋겠다고 했다. 본인도 다른 리그를 뛴 생각을 했으나 재계약 의사를 전해서 프랑스에서 개인 훈련을 하면서 휴식도 취한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모마의 신장은 작은 편인데.

우리 리그 특성상 하이볼 공격을 잘 해야 한다. 힘도 있고, 블로킹은 낮지만 공격 타점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볼을 잘 처리하는 선수다. 3년이나 V-리그에서 뛰었다. 사용구 교체 이후 서브가 그 전보다는 좋지 않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져서 기대하고 있다.

- 선수단 변화가 거의 없다.

세 시즌 치르면서 어린 선수들도 경험을 쌓았다. 착실히 잘 준비한다면 더 나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주향이 빠져나간 건 아쉽지만 대체 자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

### ■ 페퍼저축은행 바르바라 자비치

- 1순위 소감?

순간에는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가족과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을 받으니 실감이 난다.

-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한국 리그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도전하고 싶었다. 충분히 성장하고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리그가 잘 조직되어 있고, 프로배구 수준이 높은 거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선수로서도 성장하고, 팀이 성장하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 한국에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 좋다.

- 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 학교에 다닐 땐 공부벌레였다. 높은 성적을 받아서 교수들이 왜 공부를 그만두는지 이해를 못 하셨다. 1년만 더 하면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 간 것 자체가 배구를 하고 싶어서였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고, 부상을 당해서 커리어가 끝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비해 대학에 갔다. 크로아티아에선 운동과 공부를 높은 수준에서 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갔다. 교수님들은 공부를 더 하라고 했지만, 선수 생활하고 싶을 땐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을 땐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페퍼에서 났던 야스민은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

---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언니가 다른 리그에서 뛰면 항상 방문했다. 결혼하고 자기 생활이 있어서. 고양이 두 마리가 같이 갈 것이다. 언니 생일이 18일이라 등번호 18번을 달았다.

### ■ 한국도로공사 메렐린 니콜로바

- 지명된 기분은.

너무 행복하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트라이아웃 즐기러 왔는데 선택받아 좋다. 지난 여름 VNL 때 한국에 온 적이 있다.

- 김종민 감독은 공을 다루는 기술이 좋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브가 좋던데. 자신이 있나.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안주하지 않고 매일 노력하려고 한다.

- 미들블로커로 시작했는데.

작은 도시(비딘)에 시작해서 모든 포지션을 다 했다. 왼손잡이다 보니 아포짓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일상생활도 다 왼손으로 한다.

- 불가리아 출신 엘리사 바실레바와 인연이 있는지.

너무 좋아하고 1년 정도 대표팀에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 너무 착하다. 어린 선수들을 많이 챙겨줬다.

- 바실레바가 V-리그에서 57점을 올린 적이 있다.

최선은 다해보겠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롤모델은 티아나 보스코비치(세르비아)와 이사벨 학(스웨덴)이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 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 IBK기업은행 빅토리아 댄착

(러시아어만 쓰고 영어를 잘 못해 내용이 짧습니다.)

- 드래프트 지명된 기분은.

행복하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게 믿어지지 않았다. 충격적이다.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해외 여행을 한 뒤 한국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버지는 나라 사정상 오기 어렵고,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할 것 같다.

- 본인의 장점은.

힘이 세고 공격이 강하다.

-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시아 리그 경험은 없다. 좋은 수비와 수준 높은 배구, 빠른 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팝을 좋아한다. 블랙핑크와 엑소를 안다. 남산 타워, 한복에 대해 알고 있다.

### ■ 흥국생명 투르쿠 부르주

- 기대하고 있었는지.

기대는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마지막 순번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놀랐다. 너무 행복했다. 에이전트가 최선을 다하면 잘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확신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 아본단자 감독과 대화를 나눴는지.

트라이아웃 전에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고, 터키어로 인사를 했다.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다고는 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 상대 팀으로 만났었다.

---



Bravo KOVO!  
**KOVO**

한국배구연맹

12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홍보팀 T.02 422 0110 F. 02 418 0131 www.kovo.co.kr

---

## 보도자료 PRESS RELEASE

---

- 김연경과 함께 뛰게 됐다.

정말 흥분된다. 꿈같다. 어릴 때부터 우상이었던 선수여서 같이 뛰겠다고 생각하니 좋다. 내 기분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김연경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뛰는 모습을 봤었다. 최종적인 선수로서의 목표는 여러 나라에서 문화를 배우고, 큰 경기를 많이 뛰는 것이다. 김연경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할지도 모른다.

-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웃음). 내 강점은 생각을 하는 배구를 한다. 블로킹 위로 때리는 것도 자신있다.